



Mt. Geomdansen 검단산



검단산 나무 이야기
얼레지
우리나라 전국 높은 산지에서 자라는 얼레지는 여러해살이풀로 10~20cm 높이로 자란다. 잎은 땅속 깊이 들어 있는 길쭉한 모양의 비늘줄기에서 2개씩 나와 수평으로 퍼지는데 타원형이고 앞 표면에 자주색의 얼룩무늬가 있다. 4월에 분홍색 꽃이 피는데 뒤로 말리며 밤이 되면 오프라드다. 열매는 타원형이고 3줄로 쪼개진다.

하남시청에서 동쪽에 위치한 높이 657m의 산으로 백제 한성시대 하남 위례성의 송산(崇山), 진산(鎭山)으로 왕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신성한 산으로 전해진다. 검단산 정상에 서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류하는 양수리와 하남시는 물론 서울과 양평일대, 팔당호 주변 경관도 감상할 수 있어 서울 근교의 일일 등산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주요명소

곱돌약수터 Gobdol Mineral Spring 4B



현충탑 등산로를 따라 녹음이 우거진 비교적 넓고 평탄한 길을 40여 분 올라가면 전망 좋은 곳에 곱돌약수터가 나온다. 지금은 폐광이 된 곱돌광산이 근처에 있고 이곳에서 내려다보는 하남시 풍경이 시원해 쉬어가기에 좋다. 등산객뿐 아니라 물맛 좋은 약수를 담아 가기 위해 많은 시민이 찾는다.

소나무군락 Pine Tree Forest

검단산 중턱에 이르면 산림욕장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울창한 소나무 군락을 만날 수 있다. 나무의 키가 12~15m에 달하는 소나무는 신갈나무와 상수리나무 군락과 함께 울창한 숲을 이룬다. 밤나무 조림지도 형성돼 있어 가을 산행에 재미를 더한다.



장수탑·통일기원탑 Jangsutap Tower, Reunification Tower 6B



검단산에는 마이산의 탑사에서 볼 수 있는 탑이 2기 서 있다. 개인이 쌓은 돌탑으로 건강을 생각해 장수탑을 쌓고 나라를 위해 통일기원탑을 세웠는데, 검단산을 찾는 이들이 건강하게 장수하고 나라가 통일되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사는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람이 표지석에 잘 나타나 있다. 생긴 모양이 멋있고 탑을 쌓은 정성이 엿보인다.

Tip

검·단·산·이·름·유·래

'검단산'이라는 이름은 백제시대의 승려였던 검단선사가 은거했다고 해서 붙여졌다는 설이 있으나 확인되지 않는다. 최근 백제 사학자나 향토 사학자들에 의해 제시되는 설은 검단산이 '신성한 계단이 있는 큰 산'이라는 뜻으로 백제 때 왕이 천신에게 제사지내던 계단으로 추정되는 장방형 석축 계단이 발견되었으며 검단산의 '검'은 '신성하다, 크다'라는 의미가 있고 '단'은 '계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검단산이 백제 한성시대(기원전 18년~서기 475년) 왕이 올라 하늘에 제사지내던 신성한 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변 관광명소

미사리조정 경기장 Misari Boat Race Course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조정과 카누 경기가 진행됐던 국제 규모의 경기장이다. 네모로 반듯하게 생긴 아름다운 경기장을 따라 조성돼 있는 5km 길이의 자전거 코스와 넓은 잔디밭, 산책로,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꾸며져 있어 가족 레포츠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 09:00~18:00(연중무휴) 🎫 무료 ☎ (031)790-8114

구산성지 Gusan Sacred Ground



김우집(김성우 안토니오 성인)을 비롯한 수많은 천주교도가 순교한 사적지로서 200여 년 동안 순교자들의 숨결이 고스란히 살아 숨 쉬는 곳이다. 이곳 뒷산이 거북이 모습을 닮아 거북이 산이라는 뜻의 한자인 '龜山'이 되었다. 조용하고 아늑한 마을에 위치한 구산성지 한 가운데 세워진 성모자상 앞에 서면 마음이 절로 차분해진다. 이곳은 순교한 성인들의 후손이 대대로 성인들의 묘소와 현양비를 지키며 살아온 교우촌이기도 하다.

☎ (031)792-8540 🌐 www.gusansungji.or.kr

미사리카페촌 Misari Cafe Village



올림픽대로를 따라가다 팔당대교까지 이어지는 도로변에 라이브 카페들이 들어서면서 문화촌이 형성되었다. 낮에는 탁 트인 한강을 바라보며, 밤에는 꽃처럼 화려하게 피어나는 야경 속에서 유명 통기타 가수들의 익숙하고도 다양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수도권 대표적 명소이다.

팔당댐 Paldang Dam 2B

수도권 지역의 상수원 확보와 홍수조절 및 전력생산을 위해 만들어진 팔당댐은 주변 경관이 아름답고, 여름철 수문이 열리는 시기에는 그 시원한 광경을 보기 위해 많은 이들이 찾는다. 공도교가 다시 개통되어 방문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댐을 찾을 수 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통과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있다.

☎ (02)3456-2114 🌐 www.khnp.co.kr



축제

이·성·문·화·제

이성산성이 춘궁동 일대에서 발굴되면서 2,000여 년 전 백제가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정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문화제가 열린다. 종합축제로서 조선 중기부터 한강변 마을의 안녕과 뱃길의 무사고를 기원하던 미사성황제와 하남시의 문화유적을 순례하는 옛길 걷기대회 등이 개최된다. ☎ 하남시 문화체육과 (031)790-6063

» 검단산 먹/거/리

장어구이 ▶

검단산 등산로 주변에는 갖가지 종류의 음식점들이 들어서 있어 등산 후 입맛에 따라 골라먹을 수 있다. 구수하고 든든한 보리밥은 물론 시원한 막걸리 한 잔과 어울리는 파전, 도토리묵은 물론이고 깔끔한 국수 등 추억의 음식들이 손님을 기다린다. 아니면 검단산 정상에서 팔당댐을 내려다본 시원한 기분을 실려 팔당호 근처에서 민물 회나 매운탕, 숯불장어구이 등을 여유롭게 먹어도 좋을 것.



가을철 등산 장비 - 윈드 재킷



소매부분과 목부분은 벨크로 테이프(일명 찝찝이)와 고무줄 2중 처리로 냉기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
땀에 의한 습기 배출이 용이하도록 거드랑이가 지퍼로 처리된 통풍구가 있는 것
잘산 윈드 재킷 한 벌이 열 내복부럽지 않습니다. 평상복이나 등계 레저용으로 두루두루 입을 수 있으니 한번 정만해보세요.
허단 조임 끈은 냉기가 밀려 들어오는 것을 차단함

교통 정보 Transportation

대중교통

- 서울역(지하철 1·4호선)에서 9301번 버스 이용.(광화문, 종로경유 좌석버스 04:30~00:30)
- 잠실역(지하철 2·8호선)에서 30-3, 30-5, 341번 버스 이용.
- 동서울터미널역(지하철 2호선)에서 15-3, 112, 112-1번 버스 이용.
- 천호역(지하철 5호선)에서 30-3, 341, 9301, 112번 버스 이용.

자카운전

- 올림픽대로→팔당대교→애니메이션교고
- 외곽순환고속도로→충부고속도로→하남IC→애니메이션교고
- 외곽순환고속도로→상일IC→하남시청→애니메이션교고

여행 정보 Tourist Information

경기종합관광안내소 ☎ (031)1330
하남시 도시과 ☎ (031)790-6341
하남시 문화체육과 ☎ (031)790-6063

※산불조심기간 : 봄철 2.1~5.15
가을철 11.1~12.15

파라다임이 내려다보이는 역사의 산

해발 657m | 경기도 하남시



- 등산코스**
- 제 1코스 산곡초등학교 → 통일기원탑 → 곰터약수터 → 정상 (2.6km, 1시간 25분)
 - 제 2코스 애니메이션고등학교 → 현충탑 → 곰돌약수터 → 정상 (3.1km, 1시간 30분)
 - 제 3코스 애니메이션고등학교 → 유길준묘 → 전망바위 → 정상 (3.5km, 1시간 40분)
 - 제 4코스 아랫배알미 → 정상 (2.1km, 1시간 10분)
 - 제 5코스 윗배알미 → 정상 (3.5km, 1시간 30분)

Mt. Ungilsan 운길산



운길산 나무 이야기

말채나무

주차장에서 관찰전광대를 지나 수종사까지, 꾸준히 보이는 말채나무는 그리 흔한 나무가 아니다. 간혹, 산의 계곡이면 어디에서나 잘 자라는 층층나무와 혼동해 말채나무에 층층나무라는 이름을 붙여 놓아 흔한 나무 취급을 받기도 한다. 가지 끝이 낭창낭창하게 휘어지며 약간 처지기 때문에 생긴 모양이 말의 채적과 같아 말채나무라는 이름이 붙은 것. 5~6월에 가지 끝에 자잘한 흰색 꽃이 모여 핀다. 어린 가지는 겨울눈과 함께 붉은 색을 띠며 9~10월에 둥글고 검은 열매를 맺는다.

운길산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수하는 두물머리 서북쪽에 자리하고 있다. 높이도 아담하고 산세 또한 부드럽워 힘들지 않게 오를 수 있다. 산행은 송촌리 연세중학교나 진중리 조안보건지소에서 시작하는 게 보통인데 어느 쪽으로든 왕복 4시간이면 충분하다. 출발점은 각기 다르지만 수종사가 중간 기착지이다. 수종사와, 수령이 500년 넘는 운길산 은행나무가 유명해 가을철 나들이 등산객이 많다.

주요명소

수종사 Sujongsa Temple 5B



수종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봉선사의 말사로 1458년(세조4) 세조가 절을 지었다는 유래가 전해진다. 운길산 등산객이라면 바쁜 걸음을 멈추고 반드시 들렀다 가는 곳이다. 수종사 최고의 자랑은 단연 전망이다. 이곳에서는 두물머리의 은빛 물길에 흰하 내려다보인다. 조선 선종 때 대학사 서거정이 "동방 절간 가운데 이만한 전망을 가진 절이 없다"고 칭송했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다. 수종사에는 대웅전 왼쪽으로 경가지방문화재로 이름을 올린 팔각오층석탑과 부도가 있다. 수종사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곳에는 삼정헌이라는 다실이 자리하고 있다. 차는 무료다. ☎(031)576-1792

운길산은행나무 Ginkgo Tree of Ungilsan 5B

수종사 아래에 두 그루의 은행나무가 있는데 세조가 심었다고 전해지며 수령은 500년이 넘었다. 말동치 돌레가 5m를 훨씬

넘는 거대한 나무다. 30m 정도 거리를 두고 두 그루의 은행나무가 마주보고 있다. 웅문산 은행나무나 천태산 영국사의 은행나무가 평지에 자리한 반면 이 은행나무는 고지대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은행나무 근처에는 해우소가 있는데, 여느 곳과 달리 안으로 들어갈 때는 안방에 들어갈 때처럼 반드시 신발을 벗어야 한다.



아라크노피아 Arachnopia 2C



아라크노피아에는 '거미류'라는 뜻을 가진 단어Arachnide와 '천국'을 의미하는 단어 Utopia가 합쳐진 말로서 말 그대로 '거미천국'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거미전문가인 김주필 박사가 38년 동안 전세계를 돌며 채집한 5,000여 종, 13만 마리의 거미표본을 소장하고 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강종거미부터 어른 주먹만 한 타란툴라까지 세상의 거미란 거미는 다 있다. 거미박물관 외에도 야생화정원과 장승공원, 천문대 등이 있어 가족 여행지로 그만이다. ☎09:00~18:00(매주 월요일 휴관) ☎500원 ☎(031)461-3610 ☎www.korail.go.kr

주변 관광명소

다산유적지 Dasan Jeong Yak Yong Historical Site



실학의 대가 다산 정약용(1762~1836) 선생이 태어난 마을이다. 조선의 개혁을 꿈꾸었던 그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랜 유배 생활 끝에 이곳에서 숨을 거두었다. 유적지 내에는 다산 선생의 생가인 여유당과 선생의 묘, 다산문화관 등이 들어서 있다. 다산문화관에서는 다산 선생의 업적과 그가 남긴 작품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역사적인 교육장소로 뿐만 아니라 가족나들이 장소로도 좋다. ☎(031)590-2481, 2837

남양주종합촬영소 Namyangju Studios

남양주 종합촬영소는 영화, 비디오, 애니메이션 CF 등 각종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실내 스튜디오와 첨단 장비를 갖춘 곳이다. 그러나 이곳은 영화인들만의 장소가 아니다. 미국의 유니버설 스튜디오처럼 누구나 특별한 영화체험을 할 수 있다. 유명 영화가 제작된 세트와 촬영시설들을 보고 조명, 음향, 편집 등 간단한 체험으로 감독이 되어보기도 하고, 블루스크린 세트에서 암벽타기 등의 체험 등을 통해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볼 수도 있다.

☎10:00~18:00(동절기 10:00~17:00)
☎어른 3,000원, 청소년 2,500원, 어린이 3,000원
☎(031)579-0600 ☎studio.kofic.or.kr

한확선생신도비 Sindobi Monument of Han Hwak



하기가 어려운데, 비는 한확선생이 타계한 지 39년 후인 1495년(연산군 1)에 조성되었다.

왈츠와닥터만 커피박물관 Watz & Dr. Mahn Coffee Museum

하고많은 커피의 모든 매력을 한 자리에서 만끽할 수 있는 곳. 잘 익은 커피 열매의 색깔을 표현한 자줏빛 건물 안은 레스토랑과 커피박물관으로 꾸며져 있다. 다양한 종류의 커피를 만져볼 수도 있고 직접 원두액을 추출하여 시음도 가능하다. 커피가 재배되는 온실도 있는데 우리에게 익숙치않은 커피나무의 생장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10:30~18:00(30분 간격 입장, 매주 월요일 휴관)
☎어른 5,000원, 청소년 및 어린이 3,000원
☎(031)576-0020 ☎www.wndcof.com

운길산 먹/거/리

동치미 국수 ▶

남양주시는 북한강변 드라이브 코스가 좋아 조안면 일대에는 유명한 음식점들이 많은 편이다. 운길산 산행 후에는 동치미 국수나 순두부 요리로 기력을 회복하는 센스를 발휘해보자. 순두부를 파는 남양주의 여남은 음식점은 직접 콩 농사를 지어 요리해주는 게 기본이라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아니면 입이 얼얼할 만큼 시원하지만 겨울에도 맛을 못잊어 찾게 되는 동치미 국수로 한껏 열이 오른 속을 풀어주는 것도 좋다.



교통 정보 Transportation

대중교통

- 청량리역(지하철 1호선) 166~2번 버스 이용해 송촌리 또는 진중리 하차.
- 강변역(지하철 2호선) 2000~1번 버스 이용해 진중삼거리 검문소에서 하차. 마을버스 또는 166~1번 버스 타고 수종사 앞에서 하차.
- 덕소역(지하철1호선)에서 양수리행 버스 이용해 운길산 입구 가는 버스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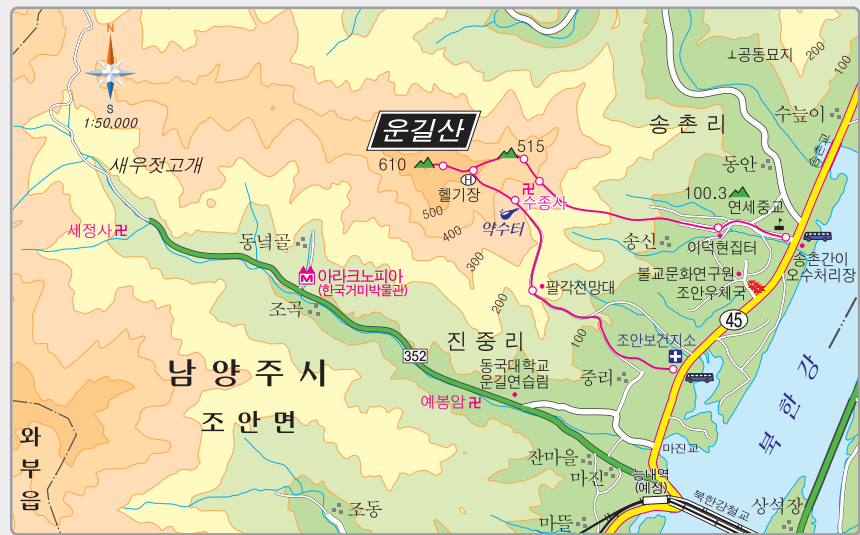
자기관전

- 강변북로→6번 국도 양평방향→양수대교 앞 조안교차로에서 좌회전→45번 국도→진중삼거리에서 좌회전→수종사 입구
- 중부고속국도→외곽순환고속국도→하남 IC→팔당대교→6번 국도 양평방향→양수대교 앞 조안교차로에서 좌회전→45번 국도→진중삼거리에서 좌회전→수종사 입구

여행 정보 Tourist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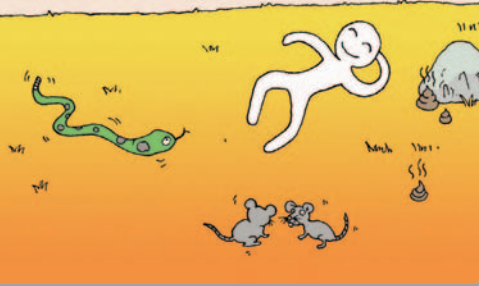
경기종합관광안내소 ☎(031)1330
남양주시 산림과 ☎(031)590-2344
덕소역 ☎(031)577-77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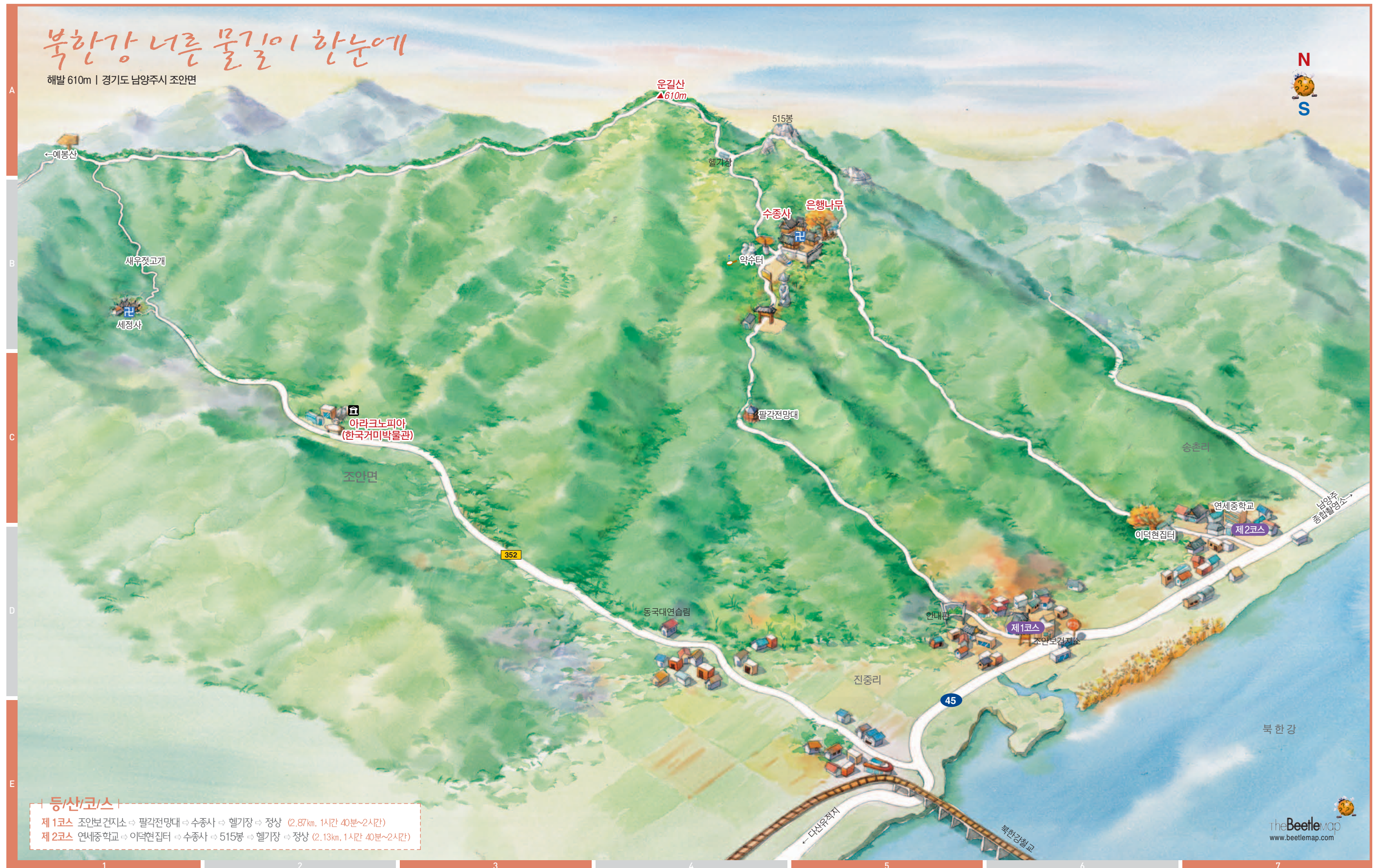
※산불조심기간 : 봄철 2.1~5.15
가을철 11.1~12.15



가을철 산행 주의사항 3-외부위험

가을에는 뱀이나 기타 벌레의 독이 가장 강해지는 계절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뱀은 자신에게 해를 가하거나 영역을 침범했을 때 공격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등산로가 아닌 곳에 굳이 들어가 뱀에게 물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벌이 가까이 왔을 때는 태연하게 반응해 벌이 자극받지 않도록 하세요. 들쥐들의 배설물을 통해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될 수 있으니 함부로 드러놓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용문산 꽃 이야기

백문동

용문산 주능선 등산로 주변에는 밭에 길릴 만큼 많은 백문동이 가느다란 이파리를 늘어 뜨려 길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이다. 백합과에 속하는 백문동은 중부 이남 산지, 그늘진 곳에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30~50cm 높이로 자란다. 이파리가 길고 부드러운 밭에 감기는 감촉이 무척 좋다. 겨울에도 푸른 잎이 죽지 않고 살아 있다 해 '겨우살이풀'이라고 하는데 5~6월 연보라색 꽃이 기다란 꽃차례에 달리고 4mm 작은 꽃이 성글게 열린다. 열매는 둥글고 가을에 자주색으로 익는다.

용문산은 경기도 내에서 화악산, 명지산, 국망봉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산으로 기암괴석과 고산준령을 고루 갖추고 있는 산이다. 산이 높고 생각보다 험해 쉽게 오를 수 있는 산은 아니지만 산기슭에 있는 고찰 용문사와 천연기념물인 동양 최대의 은행나무를 보기 위해 특히 가을이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북서쪽 계곡을 따라 마당바위에 이르는 코스와 상원사를 거쳐 장군봉에 이르는 코스가 주요 등산로로 이용된다.

주요명소

용문사Yongmunsa Temple 5C



913년(신라 신덕왕 2) 대경대사가 창건했다는 설과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재위 927~935)이 세웠다고 전해지는 천년 고찰로 용문산의 중심 사찰이다. 1378년(고려 우왕 4) 개공 경천사의 대장경을 옮겨 봉안했고 1395년(조선 태조 4) 조안 화상이 중창, 1457년 세조가 왕명으로 중수했다. 1907년 의병 근거지로 이용되자 일본군에 의해 소실되었다가 1908년부터 중건과 중수를 거듭해 현재 대웅전, 삼성각, 범종각, 지장전, 관음전, 일주문, 미륵불 등을 조성했다. 어른 1,600원, 청소년 1,050원, 어린이 700원 (031)773-3797

용문사은행나무 Gingko tree of Yongmunsa 4C

수령 1100~1200년, 높이 62m로 동양에서 가장 큰 은행나무이다. 천연기념물 제3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용문사 대웅전 앞에 위치하여 용문사의 천왕문 역할을 하고 있다.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이 스승 대경대사를 찾아와 심었다는 전설과 경순왕의 만이들 마의태자가 나라 잃은 설움을 안고 금강산으로 들어가는 길에 심었다는 전설, 신라의 고승 의상대사가 잠고 다녔던 지팡이를 꽂은 것이 자랐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마당바위 Madangbawi Rock 4B



용문산 입구에서 2.9km쯤 산을 오르면 커다란 바위를 만난다. 등산길 왼쪽, 개울가에 뒷부분이 깨끗하게 잘려나간 2m 높이의 마당바위는 어른이 20여 명도 넘게 앉아 쉴 수 있는, 이름 그대로 마당 같은 바위이다. 하도 평평해 누가 봐도 점심 먹기 딱 좋은 장소라고 생각할 정도. 마당바위 위쪽으로는 개울이 없으므로 개울가에서 점심을 먹고 싶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

장군봉과 용문산정상 Janggunbong Peak 4B

용문산은 정상에 레이더 기지가 있어 정상까지의 등산로는 군사적인 이유로 폐쇄되어 있다. 정상 밑 약 150m 지점에서 등산길로 하산하던지 장군봉 방향으로 능선을 타야 한다. 가을이면 용문산에서 가장 고운 단풍을 자랑하는 상원사로 하산하는 길이 일반적인데 능선을 타고 가다 장군봉에서 하산하면 된다. 장군봉은 봉우리 없이 비석 하나가 세워져 있는데 날이 맑은 날에는 남산타워까지 보인다.



주변 관광명소

세미원 Syemiwon



세미원은 '관수세심 관화미심(觀水洗心 觀花美心)'에서 따온 말로 물과 꽃을 보며 마음을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이들이 찾고 즐기는 곳이다. 빨래판 모양으로 조성된 세미원의 길을 걸으며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일 년 내내 피어나는 아름다운 수련과 곳곳에 전시된 시와 그림들을 마주하며 자연과 문화, 예술의 어우러짐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다. 두물머리가 한눈에 보이는 관란대와 모네의 정원, 유상곡수 등 구석구석 방문객을 위한 섬세한 손길이 느껴진다. 관람은 예약을 해야 가능하다. 09:00~18:00(12월~2월 10:00~16:00, 매주 월요일 휴관) (031)775-1834 www.semiwon.or.kr

닥터 박 갤러리 Dr. Park's Gallery

88번 국도 변에 들어서 있는 닥터 박 갤러리는 미술품 관람은 물론, 영상상영관, 아트숍, 카페, 야외무대, 열린 장터 등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이다. 의사 박호길 씨가 창조한 공간들로서 '실만한 물가', '방주극장' 등 저마다 독특하고 아름다운 이름이 붙어 있다. 매달 까다롭게 선정된 미술품이 전시되며 정기음악회도 열려 아는 사람들은 지나며 꼭 들르는 곳이기도 하다. 11:00~20:00(매주 월요일 휴관) (031)775-5600~3 어른 6,000원, 어린이(13세 이하) 5,000원

들꽃수목원 Deulkkot Arboretum

10만 평 대지에 대규모 야생화 재배단지과 습지원, 자연생태 박물관, 생태환경체험장 등을 갖추고 있다. 자연학습체험장



도 마련되어 있다. 09:30~18:00(11~3월 09:30~17:00) 일반 5,000원, 학생 3,500원 (031)722-1800

민물고기생태학습관 Museum of Freshwater Ecology

우리나라 민물고기의 생태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곳으로 어름치, 쉬리 등 희귀 민물고기 70여종을 관찰할 수 있다. 영상학습실, 아와터치학습장, 생태연못 등을 갖추고 있으며 단체 견학은 1주일 전에 예약해야 한다. 10:00~17:00(매주 월요일·설날·추석 당일 휴관) 없음 (031)772-3480



은행나무축제

은행나무 이파리가 노랗게 익어가는 가을의 길목, 매년 10월이면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은행나무축제가 열린다. 용문산 관광지와 강상체육공원에서 열리는 이 축제는, 용문산의 영로로서 수령 1000년이 넘는 용문산 은행나무의 안녕을 기원하고 양평군민과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용문산을 찾는 많은 등산객과 관광객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와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양평군 문화관광과 (031)770-2471~3

축제



양평_은행나무축제

교통 정보 Transportation

대중교통

- 상봉터미널(지하철 7호선)에서 용문행 직행 버스 이용. (30분 간격 배차)
- 동서울터미널(지하철 2호선)에서 용문사행 직행버스 이용. (1일 2회 운행)
- 청량리역(지하철 1호선)에서 중앙선 이용해 용문역에서 하차. 용문역에서 용문사행 버스 이용.(1시간 간격 배차)

자기운전

- 울림파대로 또는 강변북로⇒6번 국도 팔당댐 방향⇒양평⇒월드컵주유소 앞에서 양평, 홍천 간 4차선 6번 국도로 좌회전⇒용문⇒용문터널 지나 331번 지방도⇒용문산관광단지

여행 정보 Tourist Information

- | | |
|-------------|---------------|
| 경기종합관광안내소 | (031)1330 |
| 용문산관광단지 매표소 | (031)773-4768 |
| 용문산관광지 터미널 | (031)773-3131 |
| 용문터미널 | (031)773-3100 |
| 상봉터미널 | (02)435-2129 |
| 동서울 종합터미널 | (02)446-8000 |
| 용문역 | (031)773-7788 |
| 청량리역 | (02)969-8003 |

※용문산 이용료
어른 2,000원, 군인·청소년 1,300원
어린이 900원

※산별조심기간 : 봄철 2.1~5.15
가을철 11.1~12.15

용문산 먹/거/리

양평 보릿고개마을 공보리밥 ▶

양평을 산자수명한 청정의시골마을을 연수리는 보기에 평범해 보이지만 외지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다. 바로, 보기에다 민망하고 맛 또한 걸끄러운 공보리밥과 개떡을 먹기 위함인데 노년들은 노년들대로 청년들이나 아이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추억을 반추하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느라 여념이 없다. 그야말로 공보리밥에 산나물 몇 가지와 고추장뿐인 상차림이지만 맛으로 소문난 곳이니 꼭 둘러보자.



등산 액세서리 - 선글라스

여름과 가을엔 눈으로 들어오는 따가운 직사광선을 피하고 겨울엔 눈(눈)에 반사되는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율 100% UV 코팅
항박력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걸러농도 75~80%



선글라스를 쓴 후에는 중성계제 물에 세척해 깨끗이 합니다. 피가거나 남지 않도록 부드러운 천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건조시켜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황금빛 은행나무로 가을향기가 물씬

해발 1157m | 양평군 용문·옥천면



등산코스

- 제 1코스 용문산 관광단지 ⇒ 마당바위 ⇒ 능선길 ⇒ 정상 (4.4km, 3시간 10분)
- 제 2코스 상원사 ⇒ 장군봉 ⇒ 정상 (2.7km, 2시간 40분)
- 제 3코스 새수골 ⇒ 백운봉 ⇒ 장군봉 ⇒ 정상 (5.3km, 4시간 30분)
- 제 4코스 사나사 ⇒ 장군봉 ⇒ 정상 (4.5km, 4시간)

Mt. Soyosan 소요산



소요산 나무 이야기

함박꽃 나무

전국 계곡에 자라는 딸기나무로서 키가 7m까지 자란다. 북한의 국화이기도 한 함박꽃 나무는 5~6월에 꽃이 피는데 6~9개의 크고 흰 꽃잎이 벌어지면 지름이 7~10cm 된다. 꽃이 잎보다 먼저 피고 꽃향기가 매우 좋으며 꽃밥과 수술대는 붉은색이 돈다. 9월에 열리는 열매는 달걀모양의 원형이고 붉은색이다. 함박꽃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산목련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소요산 각처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서 화담 양봉래와 매월당이 자주 거닐던 산이라 해서 이름 지어진 이 산은 그만큼 경관이 빼어나고 휴양하기 좋은 장소이다. '경기의 소금강'이라고도 불리는 소요산 계곡과 폭포를 찾는 이들이 많지만 산 중턱에 있는 명찰, 자재암까지 산행도 해볼 만하다. 자재암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길이 가파르지만 능선으로 접어들면 경사가 완만해 산행이 어렵지는 않다. 진달래가 필 무렵부터 단풍이 드는 가을까지 아름답다.

주요명소

자재암 Jajaeam Temple 4B



645년(선덕여왕14) 원효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요석공주를 잇기 위해 원효대사가 도를 닦던 곳이라는 설이 있다. 원효가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고 수행을 쌓았다는 뜻에서 절을 지은 후 '자재암'이라 했다고 한다. 지금은 자재암 앞으로 길이 나 있지만 예전에는 절벽 위에 제비집처럼 걸려 있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대웅전, 삼성각, 나한전, 일주문, 백운암, 요사채가 있는데 전부 1961년 중창한 것이다. 보물 제1211호인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를 소장하고 있다.

▣어른 2,000원, 군인·학생 1,200원, 어린이 650원
(동두천 시민은 신분증 제시하면 주차료와 입장료 면제)
주차료 : 소형 2,000원, 중형 3,000원, 대형 5,000원
☎(031)865-4045 www.jajaeam.org

요석별궁지 Yoseokgung Site 4D

소요산 관리사무소에서 자재암 쪽으로 350m 지점 좌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요석공주가 소요산에서 수 하던 원효대사를 사랑하여 이들 설총과 함께 찾아와 이곳에 기거하였다고 한다.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는 없지만 별궁지 비석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 놓았다.



원효폭포 Wonhyo Waterfall 4C



소요산의 대문이라 할 수 있는 일주문을 지나면 등산로 입구에서 처음 만나는 폭포이다. 10m가 넘는 폭포는 사철 아름답지만 폭포 주변으로 꽃이 피는 봄과 낙엽으로 운치 있는 가을이 절경이다. 맑은 물이 떨어지는 폭포 옆, 속세와 이별한다는 의미의 '속리교'를 지나면 소요산의 내밀한 풍경과 본격적으로 마주친다.

칼바위 Kalbawi Rock 4A

정상 of 상백운대에서 나한대에 이르는 길에 나 있는 바위들이다. 칼처럼 날카로운 크고 작은 편마암들이 200m가량 연속으로 이어져 있어 산행시 조금 긴장해야 하는 구간이다. 사람들이 범접하기 어려운 만큼 그 아름다움이 노승들과 어우러져 절경을 이룬다. 바위 능선 너머 포천 쪽으로 펼쳐지는 산맥들이 물결처럼 잘 보인다.



주변 관광명소

계곡휴양지 Valley Resort



여름철이면 피서객들이 즐겨 찾는 동두천의 휴양지이다. 산림이 67%를 차지하고 있는 동두천은 주변에 언제든지 발을 담글 수 있는 맑은 계곡이 많다. 탐동계곡, 쇠목계곡, 왕방계곡, 장림계곡 등은 가족단위 나들이 코스로 좋으며, 주변의 음식점들과 카페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

Freedom and Peace Museum 5D

잊혀가는 한국전쟁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이해, UN참전 우방국과의 우호 증진의 장을 마련하고 국민의 안보의식고취와 전쟁의 참상을 일깨우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며 소요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전시공간에는 수송기 탱크 곡사포 등 대형장비와 무전기를 전시되어 있다.

☎09:00~10:00(동절기 09:00~17:00, 월요일·설날 휴관)
▣어른 1,000원, 청소년 500원, 어린이 400원
☎(031)860-2058~9



벨기에·룩셈부르크 참전기념탑

War Memorial for Belgian and Luxembourg Troops 4D

한국전쟁 때 UN군으로 참전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군의 전공을 기념하기 위해 1975년 9월 26일 국방부에서 건립했다.



벨기에군(지상군 1개 대대)과 룩셈부르크군(지상군 1개 소대)은 1951년 1월 31일 '정의의 십자군'으로 파한되어 용진분투하다가 1956년 본국으로 개설했는데 유엔군 방어 작전에 참여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보산동관광특구거리와 중앙로 Bosan-dong Special Tourist District & Jungangno



보산동 경원선 철로 변에 위치한 미군 상대의 보세 거리, 의류, 잡화, 음식점들이 즐비한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특별한 흥미를 준다. 관광특구거리에서 약 800m 떨어진 곳에는 동두천의 주요 상권인 중앙로가 있다. 패션과 문화가 집중한 곳으로서 동두천 사람들의 활기찬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소·요·산·단·풍·문·화·제

매년 10월, 소요산과 동두천 신사거리 차 없는 거리 등지에서 열리는 단풍문화제는 동두천의 대표적인 축제이다. 단풍 절정기에는 특색 있고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열려소요산을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어우러지는 축제 한마당이 만들어진다. 산에 오르지 않더라도 빨강고노랑게 물든소요산단풍나뭇길을 걷는 낭만과 축제의 흥에 흠뻑 젖을 수 있다.

☎동두천시 문화관광과 (031)860-20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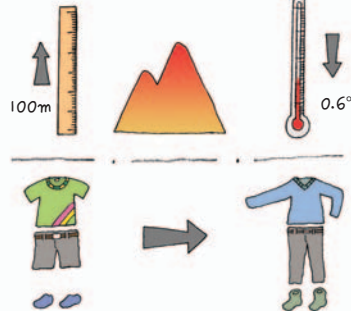
» 소요산 먹/거/리

동두천 별미로 유명한 떡갈비는 맛있지만 약간 비싼 것이 흠이라면 흠. 그렇지만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두툽한 떡갈비를 보면 금세 주머니 사정은 잊어버리게 된다. 떡갈비는 돼지 갈빗살을 곱게 다져 갖가지 양념에 버무린 뒤 두툽하게 빳은 후 잘 달군 놋쇠 판에 구운 것으로 그 모양이 떡처럼 생겨 그렇게 부르는 것인데 소요산에 갔다면 번거롭지만 시내로 나가 달콤하고 풀깃한 떡갈비로 허기진 배를 채워주자.

떡갈비 ▶



가을철 산행 주의사항 2-기온변화



고도가 100m 올라갈 때마다 기온은 0.6°씩 낮아집니다. 가을에는 일교차가 심하니 아무리 물에 열이 많은 분이라도 평소 등반시 입던 짧은 옷은 긴 옷으로 바꿔 입고서 등산화도 발목이 긴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물에서 배출되지 않으면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기능성 옷 장만을 권합니다.

교통 정보 Transportation

대중교통

- 지하철 1호선 이용해 소요역에서 하차.
- 수유리 36, 36-5, 37, 39-6번 버스 이용해 소요산역에서 하차
- 상봉역(지하철 7호선) 상봉시외버스터미널에서 소요산까지 가는 직행버스 이용.
- 인천, 성남, 원당, 능곡에서는 의정부, 동두천 가는 직행버스 이용

자기안전

- 강변북로 또는 올림픽대로⇒동부간선도로⇒3번 국도 의정부 방향⇒동두천 시내⇒소요산 표지판 보고 약 6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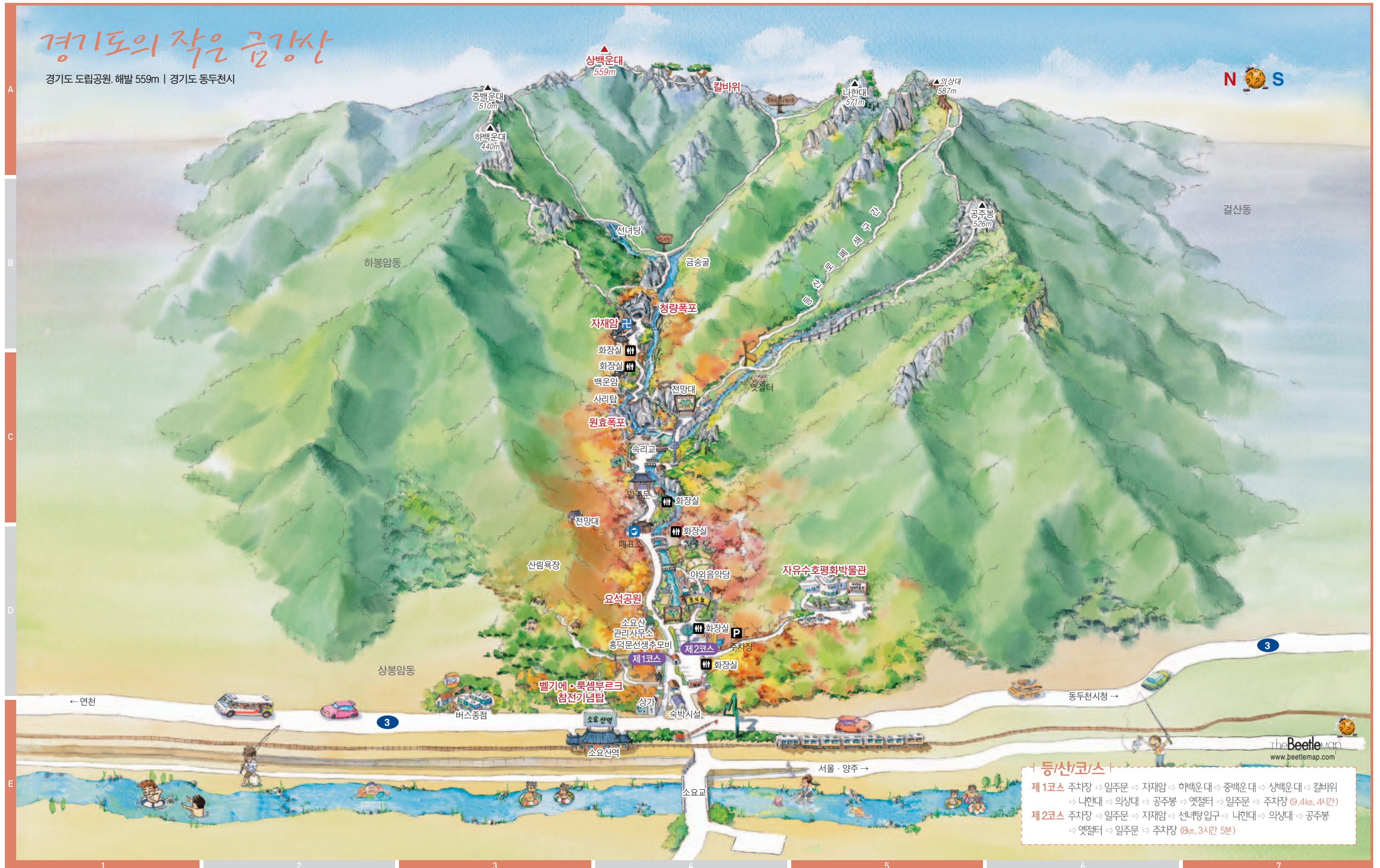
여행 정보 Tourist Information

경기종합관광안내소 ☎(031)1330
소요산 관리사무소 ☎(031)860-2065
소요소방파출소 ☎(031)865-0119
소요산역 ☎(031)865-7788
상봉시외버스터미널 ☎(02)435-2122

※산불조심기간 : 봄철 2.1~5.15
가을철 11.1~12.15

경기도의 작은 금강산

경기도 도립공원, 해발 559m | 경기도 동두천시



등산코스
제 1코스 주차장 → 일주문 → 자재암 → 하백운대 → 중백운대 → 상백운대 → 칼바위
→ 나한대 → 의상대 → 공주봉 → 옛절터 → 일주문 → 주차장 (9.4km, 4시간)
제 2코스 주차장 → 일주문 → 자재암 → 선녀탕입구 → 나한대 → 의상대 → 공주봉
→ 옛절터 → 일주문 → 주차장 (8km, 3시간 5분)

Mt. Unaksan 운악산



운악산은 화악산, 관악산, 감악산, 송악산과 함께 경기 5악으로 불리는 산으로 그 중에서도 가장 수려하다. '경기의 소금강'이라 불릴 만큼 경치가 빼어날 뿐만 아니라 산 자체로도 명산이라 할 만하다. 기괴한 모양의 산봉우리와 바위들이 산의 골격을 이루며, 산골마다 백년폭포, 무우폭포 등 아름다운 폭포들이 숨어 있다. 가을 단풍이 특히 유명한데 여러 암벽을 넘는 재미가 산을 오르는 즐거움을 더한다.

주요명소

현등사 Hyeondeungsa Temple 4C



신라시대 범종왕 때 창건된 절로서 현재까지 다섯 차례 중창을 했다. 소담스런 야생화가 아름다운 108계단을 올라 절 안으로 들어가면 고풍스럽고 신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1500여년 된 절 연혁도 그렇지만 3층 석탑, 지진탑, 지장보살상 등 문화재로 지정된 유물이 많고 절이 등진 산세도 좋아 명승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석가탄신일 즈음에 목탁에 찾아와 동지를 튼다는 목탁새가 흥미롭다.
☎(031)585-0707

무우폭포 Muu Waterfall 4C

현등사 일주문을 지나 약 1km 산을 오르다보면, 오른쪽으로 넓은 바위를 훑어 연못으로 떨어지는 폭포를 볼 수 있다. 큰 바위 위를 유유히 흐르는 이 폭포는 30~40° 기울어진 민영환 바위로도 유명하다. 구한말 궁내부대신이었던 민영환 선생이 기울어가는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던 곳이다. 1906년 나세환 외 12인의 의지로 바위에 이름을 새겨 놓은 암각서가 남아 있어 '민영환 바위'로 부르게 되었다.



삼충단 Samchungdan 4D



운악산 매표소를 지나 오른쪽에 세 개의 비석을 올린 단이 보인다. 이 삼충단은 조병세, 민영환, 최약현 선생의 충절을 기리는 제단으로 이들은 모두 1905년 체결된 을사보호조약에 항거하며 국권을 되찾기 위해 활동하다가 자결하거나 순국했다. 일제치하이던 1910년 설단해 방치되어 오다가 1989년 복원되었는데 유림, 유족, 삼충단회의 사람들이 모여 추모제향 봉행식을 열기도 한다.

미륵바위와 병풍바위 Mireukbawi Rock & Byeongpungbawi Rock 5B

운악산의 가장 인기 있는 등산코스는 바로 미륵바위 코스. 풍만한 여인네가 등을 보이고 앉아 있는 듯 보이는 눈썹바위부터 암릉은 시작된다. 능선을 타다 산행을 시작한 지 약 1시간 반 정도이면 눈앞에 미륵바위와 병풍바위가 나타나는데 운악산 기암절벽의 절정이다. 하나의 큰 바위가 병풍처럼 서 있고 깨어진 돌 사이로 소나무가 줄지어 자라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주변 관광명소

가평 요 Gapyeongyo Ceramics



통일신라 말기부터 고려시대 전 기간에 걸쳐 만들어진 고려흑자. 가평요는 명맥이 끊겨 박물관에 서만 볼 수 있었던 것을 김시영 선생이 제작기법을 연구해 고려흑자를 재현해내고 있는 도요지로 국내 유일하다. 서가색이라는 신비로운 흑색을 내는 고려흑자를 만들어볼 수 있도록 체험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독특한 흑자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다. 작업 위주의 도요지이므로 방문 전에는 꼭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한다.
☎전화로 확인, 체험은 단체일 경우 가능하며
토요일 14:00~16:00에 실시
☎관람은 무료, 체험은 성인 2만원, 중학생 이하 1만5,000원
☎(031)584-2542 ☎www.gapyeongyo.com

꽃무지풀무지수목원 Kkonmuji Pulmuji Botanical Garden



'야생수목원'이라 불릴 정도로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방문객이 자연 자체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한 수목원이다. 자연 본래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식물도감에서나 보던 토종 야생화를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게 최대의 매력. 분경 만들기, 나무목걸이 만들기 등 체험학습의 장이 되기도 하며 달빛 음악회, 단오축제 등 즐길 거리도 다양하다. 수목원 입구에 비치된 고무신을 신고 최대한 땅을 느껴보도록 하자.
☎08:00~19:00(12~3월 09:00~17:00)
☎어른 5,000원, 중·고생 4,000원, 어린이 3,000원
☎(031)585-4876 ☎www.mujiimuji.co.kr

취옹예술관 Chi-ong Art Center

물 좋고, 공기 좋은 산중에 흙, 나무, 돌로 지어진 취옹예술관은 전통 한옥집과 돌담으로 이루어진 복합문화공간이다. 각종



한옥건물은 전시실, 다실, 식당 등으로 쓰이는데 예술품 관람과 다도, 천연염색, 탈 만들기, 판소리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신아에서 직접 채집한 산채 위주의 전통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이곳에 군불을 지피는 한옥에서 한숨 잠을 청해도 좋은 곳.
☎10:00~18:00(주중 무휴) ☎어른 2,000원, 학생 1,000원
☎011-773-8649 ☎www.chi-ong.co.kr

아침 고요수목원 The Garden of Morning Calm

젊은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사랑받고 있는 아침고요수목원은 가평의 명소로서 한국의미를 최대한 반영한 아름다운 정원이다. 약 10만 평 부지에 고향 의집정원, 분재정원, 에덴정원, 약속의정원 등 총 13개의 테마 정원으로 꾸며져 있다. 희귀 멸종식물과 외국에서 도입한 식물을 포함해 약 4000 종의 식물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아름다움을 뽐내는데 산책길을 따라 꽃이 만발할 때면 수목원은 인산인해가 될 정도.
☎08:00~21:00(11~3월 09:00~21:00)
☎어른 6000원, 중·고생 5000원, 어린이 4000원(주말과 공휴일에는 어른 8000원이며, 3월에는 모든 요금이 1000원씩 싸다)
☎(031)584-6703 ☎www.morningcalm.co.kr



병·풍·바·위·찰·영·소

운악산은 규모도 크지만 기묘한 바위를 보여 산행하는 재미가 있다. 눈썹바위, 코끼리바위, 남근석, 마루바위 등 눈으로 즐길거리가 많아 사진을 찍고 싶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그중에서 가장 맛있는 바위는 바로 병풍바위. 암릉을 타다 갑자기 병풍바위가 보인다고 아무데서나 서터를 누르지 말자. 병풍바위 촬영소가 따로 있으니 그곳에선 사진 찍는 기술이 별로 없어도 사진은 예술이다.

» 운악산 먹/거/리

운악산 등산로 입구에는 여남은 개의 음식점이 용기종기 모여 있다. 주민들에게 근처 음식점에서 먹을 만한 것들을 알음알음 추천받으면 모두 한소리로 손두부라고 이야기할 것. 오랫동안 운악산 밑에서 등산객들에게 영양을 보충해주던 손맛 좋은 음식점이다. 어디를 가든 막 짝어낸 손두부의 담백한 맛을 볼 수 있다. 멸치 맛이 구수한 볶음김치와 짭짤한 산김치가 곁들여 나오니 입맛대로 골라 먹으면 된다.

순두부 ▶



Tip

교통 정보 Transportation

대중교통
• 동서울종합터미널역(지하철 2호선)이나 상봉터미널역(지하철 7호선)에서 청평행 버스 이용. 청평터미널에서 현리 방면 버스 이용해 상판리에서 하차.
• 청량리역(지하철 1호선)에서 춘천행 기차 이용해 청평역에서 하차

자기관전

• 구리시 46번 국도→신청평대교→청평담 지나 37번 국도→상면 387번 지방도→하판리

여행 정보 Tourist Information

경기종합관광안내 ☎(031)1330
가평군 산림공원과 ☎(031)580-2341, 4631
상봉터미널 ☎(02)323-5885
동서울종합터미널 ☎(02)446-8000
청평시외버스터미널 ☎(031)584-0239
청평역 ☎(031)584-0012

※운악산 이용료
어른 1,600원, 학생 600원
가평 군민 · 어린이 무료

※산불조심기간 : 봄철 2.1~5.15
가을철 11.1~12.15

단풍절정 기간과 산행 예절

우리나라 단풍은 10월 둘째 주부터 시작해 10월 말까지 절정을 이룹니다. 이 기간에는 대부분의 산에 등산객이 많아 평소보다 더 혼잡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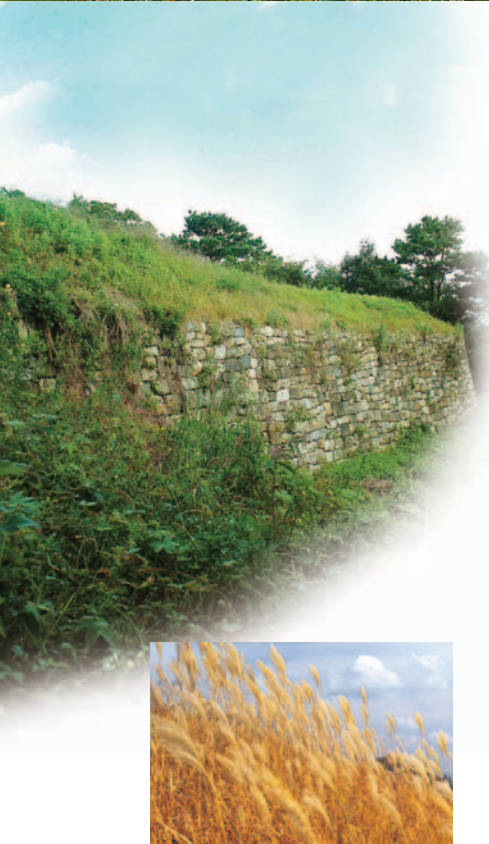


해발길에는 올라가는 시냇물을 우회길로 바꿔주고 서론 거역은 깎아내려주세요. 상하자들에게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해가 지면 상하병! 얼굴에 빛을 비추는 것도 예외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Mt. Myeongseongsan 명성산



명성산 꽃 이야기

역새

우리나라 전국 산야에 분포하는 역새는 바람에 하늘거리는 모습이 아름다워 꽃이 피는 9월이면 전국에서 역새와 관련된 축제가 열린다. 역새는 여러해살이풀로 줄기는 많이 올라오고 잎은 길이가 1m정도 된다. 보통 산에서 볼 수 있는 역새는 흔히 갈대와 혼동되는데 역새꽃은 은색이나 흰색인데 비해 갈대꽃은 고동색이나 갈색이다. 꽃이삭은 20~30cm 길이로 중심축이 전체 꽃차례 길이의 반 정도이다.

경기 북부의 대표적인 산으로 산 속으로는 역새를 기르고, 산자락은 산정호수를 끼고 있어 산을 찾는 이들에게 사계절 즐거움을 주는 산이다. 남북으로 뻗은 주능선을 기준으로 서쪽은 경사가 급해 산행이 조금 어려운 반면 바위가 발달해 웅장한 경관을 볼 수 있다. 동쪽은 경사가 완만하고 흙이 많아 대체로 편안한 산행을 즐길 수 있으며 팔각정 주변에는 역새군락지가 있어 가을 산행지로 인기가 있다.

주요명소

궁예약수터 Gungye Mineral Spring 5B



신라의 마의태자가 망국의 한을 풀어 목 놓아 울었고, 궁예가 망국의 슬픔으로 산기슭에서 터뜨린 통곡소리가 산천을 울렸다는 전설이 서린 명성산. 왕건에게 쫓기던 궁예가 물을 마셨다는 이야기가 얹힌

궁예약수터는 역새군락 사이, 팔각정 못 미처 자리하는데 산행에 지친 몸을 풀면서 목을 축일 수 있다.

역새군락지 Eulalia Forest 5B



명성산에서 가장 큰 볼거리인 역새군락지는 그 규모가 6만 평이나 된다. 가을, 역새꽃이 필 무렵이면 은빛으로 빛나는 커다란 역새가 바람에 맞춰 군무를 추는 황홀한 광경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 그 정도로 명성산 역새가 아름답기 때문인데 때 맞춰 열리는 역새꽃 축제가 역새 관광의 흥을 돋운다.

자인사 Jainisa Temple 4C



인사와 명했는데 현재는 극락보전과 몇 개의 석탑 등이 산자락에 아담히 자리하고 있다. 자인사는 약수 맛이 좋아 자인사를 지나 산에 오르는 등산객들은 이 절에 꼭 들른다.

☎(031)531-6141

사진촬영소 Photo studio 5C

명성산 정상으로 오르는 길은 많지만 산정호수를 감상하며 등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코스는 자인사를 출발점으로 하는 길이다. 자인사에서 약 40여 분 경사 급한 산길을 오르다보면 숨이 찰딱덜 즈음 벤치가 하나 나온다. 여유 없이 산을 오르다 몸을 돌려 벤치에 앉는 순간 나뭇가지 사이로 산정호수가 그림 같이 보인다. 산정호수를 감상하며 사진 찍기 좋은 장소이다.



주변 관광명소

산정호수 Sanjeong Lake 4E



북으로는 명성산에, 남으로는 망봉산에, 서로는 망무봉에 둘러싸인 산정호수는 그야말로 '산 속에 우물(山井)'이다. 초여름 이른 새벽이면 하얀 물안개가 피어올라 아름다운 전경을 자아낸다. 호수를 둘러싼 산책로를 걷거나 놀이공원, 보트장 등의 놀이시설을 이용하며 휴식을 즐기는 이들이 많다.

☎주차료 : 소형 1,500원, 대형 3,000원 ☎(031)532-6135

평강식물원 Pyung-Gang Botanical Garden

산정호수 입구에 위치한 10만여 평 규모의 평강식물원은 한국의 자생식물은 물론 전 세계 식물 4,000여 종이 전시된 종합식물원이다. 12개 테마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양 최대 규모의 고산식물 전시원인 암석원과 자연생태를 복원한 습지원, 40여 개의 연못과 화려한 꽃이 만발하는 수련원, 이끼원, 잔디광장 등이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다.

☎09:00~18:00(11~4월 10:00~16:00, 연중무휴)
☎어른 5,000원, 학생 4,000원 ☎(031)531-7751
☎www.peacelandkorea.com

신북온천환타지움 Sinbuk Hot Springs Fantasiu

신북온천에서 유출하는 물은 중탄산나트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일동이나 이동에서 즐기는 온천욕과는 다른 느낌을 준다. 물이 매끄럽고 부드러운 연수기를 사용했을 때와 같이

북으로는 명성산에, 남으로는 망봉산에, 서로는 망무봉에 둘러싸인 산정호수는 그야말로 '산 속에 우물(山井)'이다. 초여름 이른 새벽이면 하얀 물안개가 피어올라 아름다운 전경을 자아낸다. 호수를 둘러싼 산책로를 걷거나 놀이공원, 보트장 등의 놀이시설을 이용하며 휴식을 즐기는 이들이 많다.



☎07:00~19:00 (주말, 공휴일, 성수기 07:00~20:00)
☎대인 6,000원, 소인(초등학생) 4,500원
☎1577-5009 ☎www.shinbukspa.co.kr

반월성지 Banwolseong Site

해발 283m의 청성산(일명 반월산) 정상을 중심으로 축조된 반월성은 이름처럼 반달 모양으로서 둘레가 1,080m이고 면적이 37,000㎡인 산성이다. 포천지역에 분포한 성곽 중에 규모가 가장 큰데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포천지역의 주성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산이 그리 높지 않고 주변 전망도 좋아 올라볼 적하다.



축제

명·성·산·역·새·꽃·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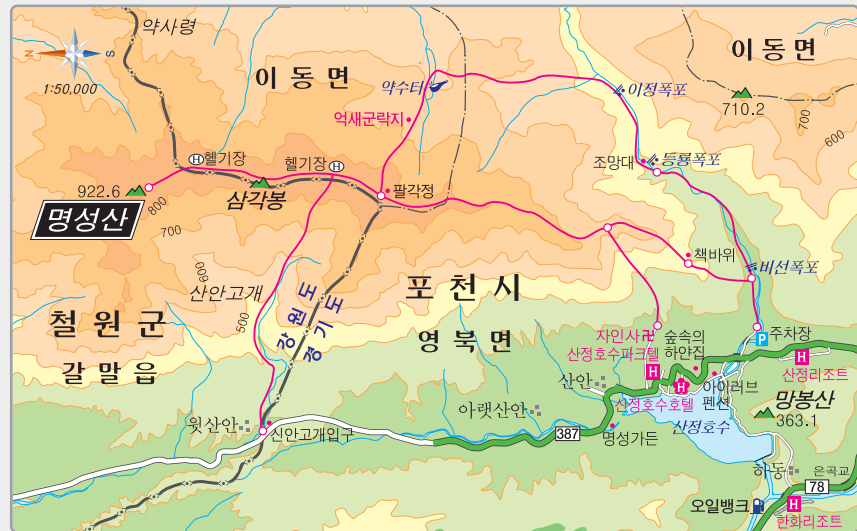
매년 10월, 두 번째 토·일요일 이틀간 산정호수 일원에서 열리는 이 축제는 마음껏 등산하고 마음껏 이동갈비를 먹을 수 있는 기회이다. 명성산 등반대회 및 각종 공연 행사가 마련되어 있으며 먹거리 시장까지 펼쳐져 몸과 입이 즐겁다.

☎포천시 공보관광담당관실 (031)538-2067~9

명성산 먹/거/리

풍혈산 순두부 ▶

구멍에서 찬바람이 나와 6월까지 얼음이 녹지 않는다는 풍혈산 자락은 이동갈비와 더불어 포천의 먹거리인 순두부로 유명하다. 100% 우리콩과 청정 자연 간수만을 사용해 맛을 내는데 우리 음식의 담백함을 느낄 수 있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맛과 영양이 뛰어나다. 풍혈산 내에 순두부촌이 형성되어 있다.



가을철 산행 주의사항 1-알정감기

가을에 접어들면 낮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 다들 아시죠? 산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더욱 민감합니다. 때문에 여름 기준으로 산행 계획을 세웠다가는 생 각보다 빨리 해가 떨어져 어두운 산속에서 낭패를 보기 일쑤지요. 가을철에는 산행을 일찍 시작해서 오후 4시 이전에는 하산을 끝내거나 잠잠 곳에도 착해야 합니다.



교통 정보 Transportation

대중교통

- 상봉역(지하철 7호선) 또는 수유역(지하철 4호선)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신철원행 직행버스 이용.(15분 간격/1시간 20분 소요) 운전에서 하차 후 현지에서 71번 산정호수행 시내버스 이용.(20분소요)
- 의정부역(지하철 1호선)에서 138-6번 버스 이용해 종점인 산정호수에서 하차.

자가운전

-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43번 국도 의정부 방향→78번 지방도 산정호수 방향→339번 지방도 자인사 방향
- 중부고속국도 서울 방향→의곡순환고속국도 구리 방향→퇴계원 IC→47번 국도 일동 방향→78번 지방도 산정호수 방향→339번 지방도 자인사 방향

여행 정보 Tourist Information

- 경기종합관광안내소 ☎(031)1330
- 포천시 산림복지과 ☎(031)538-3341~2
- 동서울 종합터미널 ☎(02)446-8000
- 수유 시외버스터미널 ☎(02)995-9188
- 운천 시외버스터미널 ☎(031)532-5217
- 일동 시외버스터미널 ☎(031)532-3286
- 의정부 시외버스터미널 ☎(031)842-3018
- 포천 시외버스터미널 ☎(031)535-7301

※산별조심기간 : 봄철 2.1~5.15
가을철 11.1~12.15

